



# 농민의 자리에서 본다

## 신사고(新思考)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요즘 우리나라는 물가비상이 걸렸다.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두자리숫자로 되면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경제가 끝장이라고 야단이다. 좀 늦긴 했지만, 우리도 남미나 필리핀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넓게 깔려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물가중에서도 부동산은 전세값 폭등으로 불과 몇달동안에 17명이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8.15해방후 토지개혁을 통해(당시는 농민이 전국민의 70%) 많은 농민들이 땅을 갖게 되었는데, 6.25때 땅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켜왔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땅 한평도 갖지 않은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은 안보차원에서든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가격과 서비스 가격의 폭등을 들고 있다. 농축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비 이하로 값이 하락할 때는 농민들이 그렇게 외쳐대도 반응이 없다가, 값이 겨우 회복되려 하면 몇 퍼센트가 폭등했다고 야단들이니 문제이다.

지난해 돼지값이 폭락했을때 수입쇠고기 방출을 생산자들이 끈질기게 건의했음에도, 많은 양돈농가들이 도산한 후인 11월말에야 시행되어 돼지값의 진폭을 줄이는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쇠고기 수입량을 5만8천톤에서 6만8천톤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소의 수를 1,000여개로 늘리고, 대규모 급식시설 등에는 수입쇠고기를 직접 공급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거대한 미국쇠고기 유통조직을 형성하게 되어 이들이 협회라도 만들면 국내 축산생산자협회보다도 그 힘이 막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미국의 쇠고기수입 개방압력이 (이미 미국은 '97년 이전에 한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국내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압력이 커져 앞으로 내우외환의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수입쇠고기로 국내 축산물 가격을 내리는데는

최근 소련의 예를 보면, 리투아니아가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하려 하자 소련이 에너지와 먹거리 공급을 차단시켜 버렸다. 그러자 리투아니아가 허리를 굽히고 대표를 굽히 모스크바로 파견하는 것을 볼때 먹거리를 자급하지 못하면 독립국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하겠다.

큰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가 애써 각고끝에 마련한 축산장기발전대책은 휴지로 변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신사고로 첫째 저축보다는 소비를(소비가 미덕(美德)이니까), 둘째 노동보다는 레저를(늡어 병들면 못노니까), 셋째 미래의 성취보다는 현재의 쾌락을(불확실성의 세대에 살면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다니까)즐긴다고 한다.

이번 수입쇠고기를 대량으로 수입량을 증가해서 방출하는 것도 미래의 우리나라 축산발전보다는 현재의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당국에 일시적 쾌락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신사고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먹거리 자급율이 39%로 떨어져 배합사료원료만도 매일 2만씩 수입해야 되는데, 축산물로 또는 가공식품으로 수입할때 일단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이나 월남전때 필요한 물자를 수송문제 때문에 미국이 전량 공급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생산공급토록 했는데, 먹거리는 일본이나 중국 등도 수입국이니 안보차원에서라도 자급계획을 수립해야지 잘못된 신사고는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이제야말로 국민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대명제하에 종합적인 먹거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축산장기발전대책이 축산물가격안정법을 만들고,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개선, 국제경쟁력제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등 좋은 말들이 많지만,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할 전업양축가의 육성이나, 공급조절기능을 담당할 가공유통업체나, 소비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외식업체 소비자조합 등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수입식품 유통의 효율화·합리화만 이루어져 먹거리 자급율만 떨어뜨린다.

최근 리투아니아가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하려 하자 에너지와 먹거리 공급을 차단하니, 독립을 2년간 유보할 수 있다고 허리를 굽히고도 모스크바로 굽히 대표를 파견하는 등 먹거리를 자급하지 못하면 독립국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돼지값이 생산비를 웃돌고 있으나 지난해 적자를 만회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가격이 회복되어도 두수가 늘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을 알고보면 수입쇠고기 방출량 증가로는 해결되기보다는 생산기반만 무너질 뿐이다. 更新